

새싹 편지

2011. 7, 8 월 호



Woosong News

- 여름방학
- 부전공 시작
- 1학년 아동복지 특강
- 2학년 여름학기특강

Our Story

- 보육실습 보고회
- 야구 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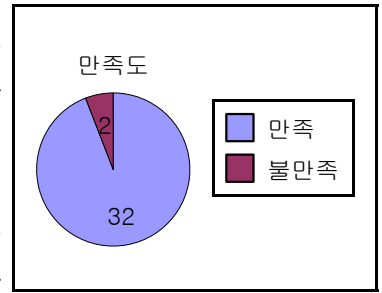
여름방학을 시작하며!

1학년의 첫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름학기를 시작하는 마음과 함께 대학생의 방학을 보람차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 하고 싶은 "BEST 3"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친구들과 좋은 추억 보내기에 대해 의견을 냈습니다. 여름이기 때문에 바다가기, 물놀이가기 등 여행에 대한 의견이 많았고 두 번째는 아르바이트하기가 많았습니다. 비싼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들은 자신의 용돈은 스스로 벌어서 사용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토익공부 또는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독서나, 봉사활동이 세 번째로 올라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하기가 어려워서 1학년 때부터 꾸준히 공부를 해야 한다는 바람직한 의견도 있었고, 학교 다닐 때는 바빠서 하지 못했던 봉사활동도 방학 때 꼭 해보고 싶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 밖의 다른 의견은 이성 친구 사귀기, 성형수술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처음 느끼는 대학생으로써의 여름방학이기 때문에 자신이 계획하고 준비했던 일을 꼭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학년 학생들은 첫 여름방학을 보람 있게 보내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부전공

2011학년도 여름 학기에는 유아교육과를 포함한 타과 2학년 학생들이 부전공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전공의 만족도에 대해 유아교육과 2학년 A반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A반 학생들은 대부분 부전공에 대해 불만족하였습니다. 학점에 예민한 학생들이 전공 이외의 타과의 전공을 15일 만에 배우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전했으며 중국어과를 선택한 학생들은 초보 반임에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너무 높아 흥미가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동캠퍼스로 스포츠 건강관리 학부 부전공을 들었던 학생들은 동캠퍼스라 교통도 불편했고 교수님도 하루에 한 번씩 바뀌는 경우가 많아 너무 혼란스러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만족하는 학생 두명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과였다고 즐거운 시간 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1학년 아동복지 특강

2011년 우송타워에서 아동복지론 특강이 있었습니다. 이번 특강은 유아교육과 11학년 학생들과 아동복지학과 학생들이 함께 들은 특강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특수 교육 현장에서 바라본 장애유아 통합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강의를 하신 박병숙 선생님은 대일초등학교의 장애 통합교사로, 장애유아



통합교육을 직접 실현하고 계신 분이였습니다. 강의는 '유아특수교육이란?', '초등특수와의 비교', '장애유아를 위한 교육' 등 총 3개의 소주

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포보육정보센터의 최명희 센터장님이 오셔서 마포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의 사업 소개와 시설 현황에 대해 강의를 하셨습니다. 마포보육정보센터는 마포구에 설치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위탁운영으로 보육 및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영유아플라자는 보육정보센터의 부속시설입니다. 영유아플라자는 보육시설 및 지역사회 영유아들에게 발달 수준에 적합한 놀이 환경을 구성해 줌으로써 보육 및 양육을 지원하고자 설치하였습니다. 두 번에 걸친 이번 특강은 아동복지에 대해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었



2학년 여름학기 특강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2학년들은 이번 여름 학기를 통해 두 분의 원감님께 특강을 듣는 좋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래동에 위치하고 있는 해원유치원의 김희선 원감 선

생님은 사립유치원기관 특성 및 유치원 일과운영이해를 맡아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교과서에선 볼 수 없던 원감선생님의 오랜 경력과 많은 사건들을 들려주셨고 사진을 보고 사립만의 분위기도 알 수 있었습니다. 대전목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계영환 원감선생님께서도 자유선택활동의 운영 및 음률활동의 실재를 맡아 수업을 진행해주셨는데 유아가 직접 작성한 자유선택활동계획 및 평가표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보내준다는 목양의 특별한 프로그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유

아들에게 지루할 수도 있는 클래식을 몸동작이나 손유희로 표현해보는 활동과 악기수업 모두 인상적이고 재밌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특강을 끝으로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모든 교육과정을 마치고 두 원감선생님처럼 뚜렷한 목표와 철학을 가진 훌륭한 교사가 되자고 다짐 했습니다.



2011학년도 여름학기 보육실습 보고회

2011년도 7월 25일, 여름학기 보육실습을 마친 3학년 학생들은 가정관 소강당에서 보육실습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보고회에는 학부장님, 유아교육과 교수님들, 대전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원장님 그리고 2, 3학년 학생들이 자리에 참여하였습니다. 발표자들은 각각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에 실습을 다녀온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실습생으로서 지켜야 할 점, 실습 시 알아두면 유용한 점에 대해 발표를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실습생으로서의 예의와 현장경험에서 우



러나온 충고들은 후배들 또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유익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보고회의 마지막에 대전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의 원장님께서 실습을 나온 학생들에게 칭찬과 성실히 임해준 자세에 대해 감사함을 전해주셨습니다. 보고회가 끝난 뒤 가정관 로비에는 3학년 모든 학생들이 실습기간동안 정리한 보육실습보고서들이 전시되어져 있었습니다. 3학년 학생

들은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어떤 활동과 제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 수 있었고, 2학년 학생들은 자료의 방대함에 놀람과 동시에 선배님들의 꼼꼼한 정리와 성실함에 한 번 더 놀랐던 시간이었습니다. 후에 보육실습을 나갈 때 어떻게 자료를 모으고, 정리해야 하는지 정보를 얻고 실제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습니다.



2011 롯데카드 프로야구 - LG 트윈스타 한화 이글스를 보러가다!

2011년 7월 5일 학교에서 나눠준 야구장 티켓을 가지고 대전한밭야구장에서 열린 '2011 롯데카드 프로야구'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를 보러갔습니다. 무더운 날씨였지만 여기저기서 우송대학교 학생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송대학교 학생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응원을 하였습니다.

LG는 먼저 2회 초 좌전 적시타를 터트리면서 1-0으로 점수를 내며 기선제압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화가 9회 말에서 한화가 2루타를 터뜨리면서 극적인 1-1로 승부를 원점으로 만들면서 경기를 흥미진진하게 이끌었습니다.

9회말 1-1 동점 상황에서 양 팀 선수들이 그라운드로 모두 뛰어나오는 벤치 클리어 링이 발생했습니다. 벤치 클리어 링이란 야구 경기 중에 벤치에 있던 선수들이 그라운드로 나가는 행동을 말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선수나 심판을 제지하거나 싸움에 가담하는 행위입니다.

야구경기를 보면서 벤치 클리어 링이라는 것을 처음 보게 되어 흥미롭고 재미있게 봤습니다. 연장 10~11회에 나지 않던 승부는 12회까지 가게 되었고 두 팀의 무승부로 끝날 것 같던 순간 한화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경기에 임했습니다. 모든 관중들이 가르시아가 승부를 낼 것이라고 예상하였지만 파울플라이로 허무하게 아웃이 되어 흐름이 끊기는 듯 하다가 이희근선수가 안타를 날리면서 승부를 냈습니다.

연장 12회까지 긴 굉장한 경기였지만 마지막 까지 경기에서 눈을 땔 수 없을 만큼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답답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다가 시원한 야구장에 나와 재미있는 경기를 보니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맛있는 간식도 먹고 함께 응원을 하며 우정을 더욱 돈독히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에서 이러한 많은 이벤트를 열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유아 상식

잘못알고 있는 유아상식 !

■ 칭찬은 무조건 약

칭찬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한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칭찬은 오히려 아이를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아이로 만들 수 있다. 칭찬만 받던 아이는 단체생활에서 꾸중을 듣게 되면 수긍하지 못해 자신의 뜻대로 될 때까지 떼를 쓰거나 반대로 기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칭찬할 때도 어떤 점을 잘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준다.

■ 보행기를 태우면 일찍 걷는다.

보행기에 태우면 걸음마가 빠르다는 말을 종종 듣곤 한다. 하지만 보행기를 사용하면 오히려 걸음마 배우는 시기가 늦어지고 안전사고 염려도 있다. 그러나 아이 혼자 다닐 수 있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엄마 손도 좀 덜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므로 잘 관찰할 수 있다면 필요에 따라 조금씩 사용해도 된다. 보행기는 아이가 허리를 제대로 가누고 앉을 수 있을 때 태우기 시작하고, 스스로 걷고 싶어할 때 그만 태우면 된다.

숨은 그림 찾기



< 찾을 그림 >

버선, 성냥개비, 낚시, 8분 음표, 은행잎, 촛불

4단 만화



< 뭉게구름 >

By. 도바기

<발행처>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http://childedu.wsu.ac.kr>
042) 630-9360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17-2 (300-718)

<발행인> 성원경 <편집인> 이예지

<만든이>

- * 박민정 * 안선경 * 이예지
- * 김연수 * 문진아 * 송하나 * 박혜령
- * 김민아 * 이정은 * 조아름